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마음자리에는 붙고 떼고 할 게 없다

☞ A17면에서 계속

십니까? 이런 얘기 하면 "중이 무슨 그런 소릴 해!" 하겠지마는, 중이라는 것은 중심, 중용, 바로 우리의 원심력의 근원,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가에서는 오신통(五神通)의 근본을 누진통(漏盡通)이라고 그러는데 누진통이라는 그 이름도 놔 버린 바로 그 자체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사생의 문제가,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 문제가 인연 따라서 모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깡통의 마음을 썼다면 깡통의 마음 차원을 가진 것끼리 인연이 됐을 거고, 내가 금의 차원이라면 금끼리 모여서 이 몸이 됐을 거고,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인연을 지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여러분! 무쇠 쪼가리를 주워다가 금방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금을 무쇠전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보석을 넝마전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넝마를 보석전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이것이 바로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끼리끼리들 모여 인연 따라서 우리의 한 몸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수십억 마리가 들끓다가 하나의 지도자만 남기고서는 그 물질은 다 없어지고 그 심령만, 바로 대장으로 뽑힌 그 물질 하나에 동일하게 같이해 줍니다. 그러면 임신이 돼서, 그 어린애가 자라는 대로 피를 따라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그 사람의 차원대로 같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는 대로 사생은 또 들어가는데 인연 따라서 차원대로 가서 같이 생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인과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업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걸 구태여 업보다, 인과다, 고다 이런 이름을 붙이지 말아 달라 이런 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인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내가 금이라면 바로 금의 인연을, 또 무쇠라면 무쇠의 인연을 가지고 자식이 태어나거든요. 본인 자체가 무쇠기 때문에 무쇠가 오는 거죠. 본인 자체가 금이라면 금이 올 테죠.

그래서 무쇠나 깡통이 서로 부딪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듯이, 한집안 가족이 서로 괴로움을 주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되죠. 또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이라도 그렇고 벌레들도 그렇고, 화생이든지 습생이든지 태생이든지, 모든 게 다들 쫓기며 쫓으며 잡아먹히며 잡아먹으며, 피를 흘리며 서로가 부딪치고 우는 이러한 것이 아마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겁니다. 벌레의 세계는 벌레의 세계대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요. 우리 인간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각박하고 조금도 여유가 없는 인생살이 같습니다. 또 인생살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삶도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대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넝마면 넝마대로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다 업보다 그런 말을 붙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넝마는 넝마대로 그냥 있지 않고 재생하는 대로 또 딴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고, 역시 또 무쇠도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아궁이 뚜껑이 됐다면 아궁이 뚜껑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걸로 모습을 해 가지고 또다시 나옵니다, 재생이 돼서. 인간도 역시 요 모습으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갑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그렇다면 업보가 없다는 생각과 있다는 생각 중에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업보가 없다' 해도 틀리고 '있다' 해도 틀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난데 마음 내는 거는 천차만별이죠. 만약에 천차만별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고가 있고 고정됨이 있겠지마는, 우리가 천차만별로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고도 인과도 업보도 거기 붙을 자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고정 관념도 없고 고정되게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오고 가는 거 먹는 것이 없어서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공(空)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세울 게 없는 것이 바로 진리며 부처며 법신(法身)이며 화신(化身)이며, 이런 것이 종합돼서 삼위일체로 회전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림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벌레들의 마음인 의식 자체가 바로 자기 의식 속에 들어와서 한데 뭉쳐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해 가지고 아들로 나온 겁니다. 자기 인간의 모습 속에 그 생명체들과 모습들로 각각 해 가지고 나왔지마는 그것이 변해서 본래로 돌아가니까 그 깻벌레와 거미들이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걸 보지 말고 구더기가 파리가 된 거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파리는 구더기를 짊어지고 나왔던가요? 아니, 구더기를 버리고 파리가 달리 있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파리라면 자기가 전자에 구더기였다는 걸 모르고 구더기는 파리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전생을 꼭 바깥에 있는 줄만 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말이지만 우리는 잠재의식 카세트에, 과거에 수억겁을 거치는 동안 모습을 바꿔 가면서 화해서 살던 얽히고설킨 그 습이 모두 감겨 있는 그 자체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짊어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각본대로 카세트에서 솔솔 풀려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팔자 운명이라고 아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팔자 운명이 아니라 자기가 한 대로 나오는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알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나의 근본 주처인 참나가 현재 나를 다지고 다져서 가르치고 이끌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에는 업보도 붙지 않고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공해서 건덕지가 없는데, 모두가 공해서 건덕지가 없는데 그 공한 자리에 붙을 게 뭐가 있습니까? 붙을 건덕지가 어딨으며 기댈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의심나걸랑 마음을 내놔 보십시오. 마음이 있다면 내놔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마음자리에는 붙고 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카세트에서 각본대로 나오는 그 자체에다 다시 새로운 것을 녹음시킨다면 수억겁 동안 감겨 있던 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바꾸어 넣는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채우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채워지는 그런 빈 그릇이 될 것입니다. 채워졌다 해도 틀리고 또 비었다 해도 틀리니, 채워지면서 비워지고 비워지면서 채워지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여여하게 지금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박하게 살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항상 '나'라고 하고 내가 했다고, 남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또 내가 남을 망하게 했다고, 내가 지금 먹고 산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뭐, 이런 따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물질적인 50%만이 아주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50%의 안 보이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아마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대략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하나 행동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감개무량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관(五官)을 통해서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과학이 발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질과학이 발전이 됨으로써 또 그 물질한테 인간이 먹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에 말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계에 말린다면 인간은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본대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카세트에다 되놓는다면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쌓아 온 습을 다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강도질을 했든 소 잡는 백정 노릇을 했든 무엇을 했든지, 어떠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놓고 돌아간다면 그 업보는 지옥고라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마음 한생각에 천차만별로 마음을 낼 수 있으니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아내가 됐다가, 때에 따라서는 형님이 됐다가 아우가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이러는데, 할머니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아내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없듯이, 그 모습 하나를 가지고서 행은 자동적으로 항상 바꿔 가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몇 가지 역을 하십니까? 식구가 여럿이면 이 식구 만나고 저 식구 만나고 그럴 때마다 자동적으로 역이 각각 달라지거든요. 남편 만나면 달라지고 아내 만나면 달라지고 자식 만나면 달라지고 자동적입니다, 그건. 벌써 말, 생각, 행동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자동적으로 달라지면서 돌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어떤 거 들었을 때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없는 판국이니 이게 광대무변한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불교" 그러는데 불교는 어떠한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불성, 영원한 불성,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법(法)은 바로 정하는 걸 말하고, 말하는 거는 교(敎)라고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한생각이 엄청난 문제를 자아낼 수 있어서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는가 하면 구덩이에서 꺼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몸에 수십억 마리의 사생이 들어 있는데, 그 수십억 마리의 마음들이 만약에 (가슴을 짚으시며) 자기 주인공인 그 근본을, 주처를 세우지 않아서 주처가 없다면 빈집에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부모가 없을 때 아이들이 아무나 데리고 들어와서 막 놀다가 그저 집안도 망가뜨리고 이러는 거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 속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있어야 지금 수십억 마리의 모든 애들이, 마음이 말입니다, 집을 지킬 수 있다 그겁니다. 모습 없는 모습들이 이 허공에 꽉 차 있어서,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들어갔다가 왕래를 하고 있고 딴 데서도 왕래를 하고 있으니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방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몸이 다닐 수 있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쓰러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 만약에 주인이 없어서 그 모습들이 왕래 없이 왕래를 하고 들락거리다 보면 내 몸은 벌써 어디 한군데가 망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다 하고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 마음 하나가 벌레라고 합시다. 그 마음 하나의 벌레가 악이라 하면 악의 씨가 수천수만 마리가 나올 수 있고 선의 씨다 하면 선의 씨대로 수천수만 마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그러니까 약도 고정됨이 없고 병도 고정됨이 없다 이 소립니다. 아무리 연구해서 이것이 이 병의 약이라고 내놓아도 얼마 안 가면 그거는 벌써 무효가 됩니다. 또 거기에 맞게 달리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병 증세는 연방 나오고, 그러니 약을 자꾸 달리 연구를 해야 하는데 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연구할 때 열 가지가 나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데의 무서운 이치라고 볼 때 이 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도 없거니와 내 가정을, 내 사회를, 내 국가를, 세계를, 우주를, 이 모든 거를 우리가 극난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강도질을 했든 무엇을 했든
어떠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놓고 돌아간다면
그 업보는 지옥고라도 다 무너집니다.

※위 법문은 87년 11월 19일 국내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